

 청년미래연석회의 2026. 9. 17.(목)	보 도 자 료			
	담당	전해정 선임비서관(백승아 의원실)	연락	02-784-8570
		소현호 주임(중앙당 청년국)		02-2630-7010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9. 17.(목) 12:00

‘2030년 무엇이 달라져 있어야 됩니까?’

2026 청년의 날 주간, 제7기 청년미래연석회의 1차 회의 개최

- 민주당이 풀어야 할 청년들의 '질문' 중심으로 연석회의 향후 과제 도출 -

- 김민석 대표 “청년주도·청년친화정당으로...청년미래연석회의가 청년정책 핵심 역할 해달라”
- 백승아 의장 “청년들 비판 귀담아듣고, 현장 제안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
-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삶, AI 시대,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민주당 미래 대응 역량 강화 주문

더불어민주당 7기 청년미래연석회의(의장: 백승아 의원)는 김민석 당대표 주재하에 오늘(1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2026 청년의 날’ 주간을 맞아 열린 회의에서 김민석 대표는 “‘청년주도정당’, ‘청년친화정당’은 전당대회 이후 당이 설정한 주요 방향 중 하나”라며, “적어도 청년 문제만큼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여야가 함께하는 주제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회의는 위원 임명 제청 절차가 진행 중인 청년들과 함께 ‘2030년, 무엇이 달라져 있어야 됩니까?’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청년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지금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집중 조명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만나 온 청년들로부터 청취한 문제들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며 의제화를 예고했다.

▲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함대건 서울시의원은 “2030년, 청년 자살률은 낮아질 수 있을까요?”란 질문을 중심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민욱 대구 남구 의원, 김기현 경산시 지역위원장, 정보현 인천시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고충을 언급하며 ‘지역에서도 일자리·주거·문화가 보장된 ‘품격 있는 삶’을 누리며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묻고 서울로 가는 것만이 정답이 된 청년의 삶을 바꿔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AI 시대에 대한 물음을 제시한 참석자도 있었다. 복병준 변리사는 “모든 걸 AI가 할 수 있는 시대에 청년들은 어디서 일을 배우고, 경력의 신뢰성은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최태석 경기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은 “AI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늘어나게 될 이익은 누가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물으며 생산 양식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청년들의 노동 환경과 상황 변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효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차장은 ‘일감이 끊긴 플랫폼 노동자는 실업자인지, 그냥 운이 나쁜 사람인지’ 물으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업데이트를 주문했다.

▲ 이외 가정 밖 청소년이 머물던 시설의 소관 부처에 따라 자립 지원의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한 정윤서 브릿지유스 대표, 아이를 낳은 청년들이 일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를 언급한 김현우 서울시의원, 서울로 편도 2시간을 출근하는 경기도 청년들이 길 위에 버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 김재상 김포시의원 발언도 이어졌다.

▲ 민주당 주요 정책 수립에 청년 미래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형남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이 내리는 결정은 10년 뒤를 내다보고 있는가?”라며, 당론, 주요 법안 등을 마련할 때 5년 뒤, 10년 뒤, 다음 세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미래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당의 사회 변화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미래연석회의는 청년의제 발굴 및 정책 실현, 청년 정치참여 활성화 등을 주관하는 중앙당 상설위원회로 최고위원 1인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지난 4일 백승아 의장과 김형남 수석부의장이 임명됐고, 임명직 위원들에 대한 임명 제청 절차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백승아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은 “청년들의 비판을 귀담아듣고, 오늘 나눈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변화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 노력에 발맞춰, 우리 제안이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청년미래연석회의의 운영 방향과 목표를 밝혔다.

<끝>

